겐에몬 가마와 고 이마리 자료관

1753 년에 개설된 겐에몬 가마는 260 년 이상에 걸쳐 수작업으로 자기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8)에 겐에몬의 도공들은 공동 가마에서 작품을 구웠습니다. 그러나 1868 년 도쿠가와 막부 붕괴 후 1870 년대에 번이 가마를 관리하지 않게 되면서 겐에몬 가문은 독자적인 가마와 생산 설비를 현재의 장소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겐에몬 가마에서는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공방을 견학할 수 있으며, 좀처럼 볼 수 없는 아리타 도자기 생산 공정의 내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 여 년간 갈고닦은 전통 기법을 사용하여 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의 모습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공방에는 바닥에 앉아 물레를 돌리는 도공, 무릎을 꿇고 성형을 하는 도공, 다양한 종류의 붓을 사용해 밑그림을 그리는 장인이 있습니다. 방문객은 가마에 불을 때는 연료로 사용되는 소나무 장작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마 근처에 있는 겐에몬 고 이마리 자료관은 1973 년에 개관했습니다. 자료관에는 6 대 겐에몬(1928~1989)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고 이마리로 불리는 아리타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1970 년에 6 대 겐에몬은 유럽 각지의 미술관과 도자기 공방을 방문하여 아리타 지역에서 수출된 이 작품들에 대해 연구하고 유럽 자기 생산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료관의 소장품 중에는 1630 년대에서 1640 년대에 만들어진 초기 아리타 도자기와 1600 년대 후반에서 1700 년대 초에 유럽으로 수출된 작품, 일본 국내 시장용으로 만들어진 유럽의 목가적인 풍경을 그린 식기, 아리타 지역의 역사적 가마 터에서 발굴된 자기 파편과 기타 공예품 등이 있습니다.